

어촌 심언광 시에 형상화된 관동의 풍토성

박 영 주*

차 례

1. 관동의 풍토성과 어촌의 관동시편
2. 산수풍경 시편에 형상화된 관동의 풍토성
3. 생활풍정 시편에 형상화된 관동의 풍토성
4. 맺음말 : 풍토 형상화 시 연구 의의

| 국문초록 |

본고는 16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어촌 심언광의 한시에 투영된 관동의 풍토성을, 산수풍경을 노래한 시편들과 생활풍정을 노래한 시편들로 나누어 그 특징적 면모를 고찰한 것이다. ‘풍토성’은 지역 특유의 자연지리적 요소에 사람살이의 여건과 결부된 인문지리적 요소가 복합된 특성을 말한다.

관동의 산수풍경을 노래한 어촌의 시편들에는 향토의 지리적 특성과 산수를 구성하는 물상들로부터 촉발된 정취가 다채롭게 형상화되어 있다. 관동의 생활풍정을 노래한 시편들에는 지역 특유의 지리적 여건과 생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배경으로, 그곳에 깃을 드리우고 사는 이들의 삶의 애환이 어촌의 심경을 대변하는 정서와 더불어 개성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편들이 환기하는 섬세한 이미지와 감각적 형상들로부터 곡진함이 묻어나며, 이로부터 어촌 시의 대표적 풍격으로 일컬을 수 있는 健富麗의 경향 또한 실감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풍토성 탐구 작업을 통해 우리는 지역 특유의 자연환경과 삶의 여건에 기반한 문학적 정서를 이해하는 안목을 넓힐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장소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향토문화 창달에 기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

핵심어 : 어촌 심언광, 자연, 관동, 풍토성, 산수풍경, 생활풍정

1. 관동의 풍토성과 어촌의 관동시편

자연은 대대로 인간 삶의 터전이자 문화 형성의 動因이 되어 왔다.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의 지향점은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이 자연을 떠나 존재할 수 없듯, 문학을 포함한 예술 또한 근원적으로 자연의 섭리와 속성으로부터 벗어나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에서 인간의 삶과 결부된 자연의 특성을 문제삼을 때 이를 代喩하는 개념으로 風土性을 상정할 수 있다. 風土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지역의 기후와 토지의 상태’·‘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風土性을 재정의해 보면, 바람(기후)과 흙(토양)으로 대변되는 지역 특유의 자연지리적 요소에 사람살이의 여건과 결부된 인문지리적 요소가 복합된 특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시대에 關東으로 통칭된 강원도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로 볼 때 남방과 북방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다, 지역 내에서도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산간과 해안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기에, 문화적 복합성을 띠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 嶺東¹⁾으로 일컫는 강원도 동해안은 남방계·북방계 문화가 다채롭게 공존하는가 하면, 산간문화와 해안문화가 나름의 개별적 특색을 면면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산간 및 해안문화의 복합과 조화가 빚어내는 특유의 문화공간과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렇기에 강원도는 濊貊國으로 대변되는 역사의 이른 시기부터 우리 민족이 삶을 일구어 온 터전이자 유구한 전통과 함께 민족문화의 축적공간이 되어 왔다.

본고는 우리 문학사에서 16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인 漁村 沈彦光(1487-1540)의 관동시편에 형상화된 관동의 풍토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漁村 시에 형상화된 관동의 풍토성을 크게 山水風景을 노래한

1) 嶺東은 강원도를 동서로 나누어 이를 때 大關嶺 동쪽의 땅을 일컫는 말로 두루 쓰인다. 과거에는 이같은 의미를 내포하면서 강원도 일원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關東이라는 말을 널리 썼다. 이 글에서는 강원도 일원을 총칭할 경우에는 關東을, 대관령 동쪽 강원도 동해안 일대를 일컫을 경우에는 嶺東을 사용하기로 한다.

시편들과 生活風情을 노래한 시편들로 나누어, 그 특징적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²⁾ 그리하여 지역 특유의 풍토성에 기반한 문학적 정서를 이해하는 안목을 넓히면서,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漁村은 강릉 출신으로서 도합 850수의 한시가 전하는 문인이다.³⁾ 후대에 간행된 『漁村集』⁴⁾은 작품 제작 시기를 염두에 두고 편제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漁村이 강원도 관찰사로 재임하던(1530) 시절의 시편들을 엮은 『東關錄』(권 4), 말년에 강릉으로 낙향한(1538) 이후 세상을 뜰 때까지의 시기에 지은 시편들을 엮은 『歸田錄』(권10)에 수록된 작품들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⁵⁾ 이렇듯 논의 대상을 관동시편으로 삼은 것은 그의 관향이 강릉⁶⁾이라는 사실 외에도, 관동에서의 삶을 노래한 두 권의 시집이 말해주듯 漁村은 이 지역 풍토성을 대변하는 산수와 풍정들에 대한 소회를 다채롭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
- 2) 조선시대 사대부 시가에 두드러진 자연예찬의 시풍에 있어서 '자연'이라는 시적 대상의 소재적 양상은 크게 山水와 田園으로 대별할 수 있다. 나아가 그 시적 형상화 내용은 山水風景과 生活風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박영주, 「강호가사에 형상화된 산수풍경과 생활풍정」, 『한국시가연구』 제10집, 한국시가학회, 2001, 310쪽 참조.
 - 3) 현전 漁村 시 작품 편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박영주, 「어촌 심언광 시 세계의 양상과 특징」,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기문화회, 2011, 236쪽 참조.
 - 4) 현전하는 『漁村集』은 1889년 중간된 活印本(국립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과 1937년 삼간된 石印本(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두 종류가 있다. 『國譯 漁村集』(강릉문화원, 2006)은 중간된 活印本을 국역한 것이다. 본고에서 인용하는 원문 역시 『國譯 漁村集』에 影印 수록된 중간본에 의거하며, 작품 인용시 그 출처만을 간략히 명시하기로 한다.
 - 5) 漁村의 『東關錄』과 『歸田錄』을 대상으로 한 기존 논의로 신익철, 「심언광의 『동관록』과 『귀전록』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제1집, 강릉문화원, 2010.)가 있다. 이 논의는 『동관록』과 『귀전록』에 수록된 작품에 나타난 漁村의 '공간 인식'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漁村의 관동 산수에 대한 인식 양상과 생애적 궤적에 따른 미의식의 변화 양상을 구명한 것으로서, 본고와는 논의 목적과 방향을 달리하기에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다.
 - 6) 전통시대 강릉지역의 범위는 오늘날과 달리 서쪽으로 오대산과 평창군 대화 일대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 의하면 강릉대도호부는 동서로 200리, 남북으로 154리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지만, 춘천도호부의 약 2배, 원주목의 약 3배에 달하는 넓이었다. 漁村이 활동하던 16세기 조선시기만 하더라도 강릉대도호부는 강원도 내 26개 군현 가운데 가장 넓었다. 그 관할 구역은 지금의 강릉시, 양양군 현남면, 동해시 망상, 평창군 대관령(도암)·진부·봉평·대화면, 정선군 임계면, 홍천군 내면까지를 그 영역으로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江陵大都護府」 참조.

2. 산수풍경 시편에 형상화된 관동의 풍토성

關東 가운데서도 동해안에 위치한 고을들에는 여느 지역에서는 마주하기 어려운 풍광이 연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관동 동해안 고을들은 서쪽으로 태백준령이 우뚝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로부터 동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급경사를 이루면서 해안에 다다르는 지형적 특색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높고 낮은 산등성이, 울창한 숲과 계곡,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두루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에, 지난날 산수유상의 구심처 역할을 했던 누정이 들어서 있는 것이 예사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시대 우리 강토의 특색과 풍토성을 권역별로 서술한 이중환(1690-1756)의 『택리지』에 “이 지역에는 이름난 호수와 기이한 바위가 많아, 높은 데 오르면 푸른 바다가 망망하고, 골짜기에 들어가면 물과 돌이 아늑하여, 경물이 실로 나라 안에서 제일이어서, 누대와 정자에서 조망하는 승경들이 많다.”⁷⁾라고 기술되어 있는 데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漁村의 다음과 같은 시는 이를 실감할 수 있는 예다.

〈次蔚珍凌虛樓韻〉 〈울진 능허루 시에 차운하다〉⁸⁾

山連南紀截東陲	산줄기 남으로 이어지다 동쪽 모퉁이에 절벽을
山下孤城境最奇	절벽 아래 누각 한 채 참으로 기이한 자리로다.
白鳥遙尋三島去	흰 새는 멀리멀리 삼신산 찾아 날아가고
碧天低入九溟垂	푸른 하늘은 나직히 드넓은 바다에 드리웠네.
冥搜宇宙充吟料	우주의 이치 그윽이 더듬어서 시상을 채우고
高揖英雄索逸詩	영웅에게 높이 읊하며 잃어버린 시를 찾아보네.
馬首風煙隨處好	말머리에 닿는 풍광, 가는 곳마다 절경이니
緩驅沙路不嫌遲	느릿느릿 걷는 모랫길, 길 더디가도 좋구려.

7) “地多名湖奇巖 登高則滄海茫洋 入洞則水石竒窈 景物實爲國中第一 多樓臺亭觀之勝”: 李重煥, 『八道總論·江原道』, 『擇里志』.

8) 『漁村集』 卷4·東關錄.

참으로 멋진 곳에 자리잡은 누각 한 채, 능허루. 산줄기가 남으로 이어지다 동쪽 모퉁이에서 깎아지른 절벽을 이루더니, 그 절벽 아슬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허공을 깔보는 누각’, 정말 이름과도 방불하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 흰 새는 멀리 날아 돌며 삼신산을 찾아간다. 수평선 끄트머리, 푸른 하늘이 드넓은 바다와 맞닿고 있다.

절로 詩心이 솟아난다. 세속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정취, 우주의 이치를 그윽이 더듬으며 시상을 채우고, 절창을 남긴 영웅(시인묵객)에게 읊하며 그들이 남긴 시를 찾는다. 이윽고 바닷가를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말머리에 닿는 풍광마다 절경’이 펼쳐진다. 음미하며 걷는 모랫길, 말걸음 발걸음 느릿느릿, 더디 가도 좋기만한 길!

울진 ‘능허루’에서 조망하는 절묘한 경관과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누각이 자리잡은 위치와 풍광을 멀리 또 가까이 시선을 옮겨가며 묘사하는 가운데, 숫구치는 시심을 들뜨지 않게 노래하고 있다. 시인의 눈에 포착된 사물과 정경들이 개성적인 감각을 통해 그림처럼 펼쳐진다.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시대, 그곳에 가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위안을 선사했을 작품이다.

이같은 누정과 함께 관동의 산수풍경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關東八景이다. 관동팔경은 북쪽 금강산으로부터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어지는 고을들에 위치한 여덟 곳의 명승⁹⁾을 일컫는다. 이는 전통시대 관동 최고의 문화유산으로서 대대로 산수유람의 최적처로 손꼽혀 왔으며, 관동 동해안의 지리적 환경과 고유의 경관 및 풍토성을 여실히 함축하고 있다. 관동팔경은 개별 경관들 자체가 대부분 누정의 명칭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¹⁰⁾ ‘총석정’을 노래한 漁村의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9) 통천의 叢石亭, 고성 三日浦, 간성의 淸澗亭, 양양의 洛山寺, 강릉의 鏡浦臺, 삼척의 竹西樓, 울진의 望洋亭, 평해의 月松亭을 일컫는다. 논자에 따라서는 월송정 대신 흡곡의 侍中臺를, 낙산사 대신 속초의 靑草湖를 들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 총석정·삼일포·시중대는 현재 북한지역에 속해 있으며, 망양정·월송정은 행정구역 편제가 바뀌면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있다.

10) 누정의 명칭을 지니지 않은 三日浦와 洛山寺의 경우에도, 경관의 핵심에 삼일포의 경우 四仙亭, 낙산사의 경우 義湘臺라는 누정이 자리잡고 있어, 關東八景은 곧 관동 여덟 곳의 누정을 일컫는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遊通川叢石亭〉 〈통천 총석정을 유람하다〉¹¹⁾

叢石峨峨立海門	총석정 기암괴석 바닷문처럼 우뚝하고
斑斑缺渤綠錢痕	알록달록 파인 흙 녹색 동전 물방울갈네.
削成可識天削剝	깎아 세웠구나 하늘이 조각칼로
鑿破應知鬼斧斤	갈라 깨뜨렸구나 귀신이 도끼로.
蒼壁不焚千歲劫	창연한 석벽 천년토록 사라지지 않았나니
白鷗棲在半空雲	하얀 갈매기 허공 구름에 깃들어 살고 있네.
四仙遺迹無尋處	네 국선 남은 자취 물어 찾을 곳 없나니
清興都輸入酒樽	맑은 흥취 모두 다 술잔 속에 스며드네.

통천 총석정을 유람한다. 웅장한 기암괴석들, 멀리에서도 한눈에 들어온다. 바다로 들어가는 문인양 우뚝이 서 있는 四仙峯, 실로 장관이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더욱 기이하고 놀랍다. 정교한 육각형 돌기둥 끄트머리께에 알록달록 파인 흙들이 마치 녹색 동전 물방울갈네. 아니 그보다도, 하늘을 찌를 듯 우뚝우뚝 서 있는 구릿빛 돌기둥들, 정녕 하늘이 조각칼로 마름질하지 않고서야, 귀신이 도끼로 갈라 깨뜨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와 같이 정교한 형상을 지닐 수 있을까, 경이로움 그 자체로다!

오랜 세월 저렇듯 변함 없는 자태로 서 있나니, 허공 구름에 깃을 드리우고 나니는 갈매기는 유구한 역사를 알리로다. 그 옛날 신라 四仙 머물다 간 자취 물어 찾을 곳 없나니, 기묘한 절경 맑은 흥취 모두 다 술잔 속으로 스며들도다. 관동팔경 ‘총석정’의 경이로운 경관을 노래한 작품이다. 叢石의 형상들은 지각변동이 활발하던 시대에 현무암 용암이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어 식으면서 수축 현상이 일어나, 육각형의 구릿빛 바위기둥인 柱狀節理를 이룬 것이다. 그 주상절리 가운데서도 정자 옆으로 우뚝이 솟은 네 개의 바위기둥을 四仙峯이라 일컫는다. 자연의 경이로운 조화와 유구한 역사 앞에 서 있는 화자의 모습을 방불히 상상할 수 있다.

관동팔경으로 대변되는 강원도 동해안 명승들은 이렇듯 자연이 빚어낸 경이

11) 『漁村集』 卷4·東關錄

로운 물상들에 신라 화랑의 자취라는 민족의 오랜 숨결이 배어 있다. 풍치나 경관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두가 명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뛰어난 풍치나 경관 속에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결부된 문화적 요소가 배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명승이라 일컬을 수 있다.¹²⁾ 그런 면에서 총석정을 위시한 관동팔경은 이같은 명승으로서의 요건을 온전히 갖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關東은 산세가 험준하고 산림이 우거져 예로부터 길이 발달하지 않은 궁벽한 지역이 많다. 이러한 사정은 漁村 당대에도 다르지 않아, 외지에서 영동에 이르러 다시 동쪽으로 나아가는 길은 트인 길줄기를 마주하기 어려운 견기조차 힘든 길이었다. 평창 대화에서 오대산 월정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모노령’을 넘는 漁村의 시 한 편을 보기로 하겠다.

〈毛老嶺上遇雪〉 〈모노령 정상에서 눈을 만나다〉¹³⁾

嶺石蒼蒼古木斜	고갯마루엔 이끼 낀 바위 고목은 비스듬한데
間關箒路曲如蛇	신우대 늘어선 험준한 산길 뱀처럼 구불구불.
漫山凍雨渾成雪	온산에 내리던 진눈깨비 모두 눈으로 바뀌어
着樹寒氷半作花	나무마다 차갑게 얼어붙어 눈꽃을 만들어내네.
玉屑墮林孤身入	옥가루 떨어지는 숲속 외로이 홀로 들어가니
銀杯散地一驢過	은잔을 땅에 흘뿌리며 나귀 한 마리 지나가네.
東來索寞無詩思	동으로 오며 삭막한 마음에 시정도 일지 않고
只有胸中愁緒多	다만 이내 가슴 속엔 시름만 갈래갈래.

한겨울, 험준한 산길을 따라 고개를 넘는다. 고갯마루에 다다르니 바위에 이끼가 무성하고 앙상한 고목은 쓰러질 듯 비스듬하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터라 견기조차 힘들다. 겨우 형체를 보이는 길 가장자리로 산대나무들이 늘어져 있고, 경사가 가팔라 뱀처럼 구불구불 이리 휘고 저리 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12) 박영주, 「관동팔경 누정기에 투영된 사유와 정서」, 『인문학보』 제32집, 강릉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244쪽 참조.

13) 『漁村集』 卷10·歸田錄

진눈깨비더니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두 눈으로 바뀌어 온 산을 하얗게 덮는다. 나무마다 눈꽃이 피어난다.

언 눈발이 옥가루처럼 떨어지는 숲속으로 홀로 들어간다. 짐을 실은 나귀 발자국이 마치 은잔을 흘뿌리듯 눈길에 새겨진다.¹⁴⁾ 한양을 떠나 이곳 동쪽으로 오에 삭막한 마음 뿐이다. 詩情도 일지 않고, 가슴속엔 다만 시름만 갈래갈래 일어난다.

漁村의 나이 52살 되던 해 파직되어 강릉으로 낙향하던 길에 지은 작품이다. 권세를 이용해 파당을 만들고 수많은 화옥을 일으킨 김안로(1481-1537)를 조정에서 천거한 허물 때문이었다. 직접마저 회수당한 채 낙향해야 하는 참담함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한겨울 눈 내리는 산길을 외롭게 걸어 낙향하는 심경이 쓸쓸함을 자아내는 풍광들과 더불어 차갑게 배어 있다. ‘愁緒多(시름만 갈래갈래)’라는 시구 속에 당시 漁村의 참담한 심사가 집약되어 있다.

이 작품은 漁村의 낙향 심사가 잘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관동의 지리적 특성에 말이얇은 풍토성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다. 구불구불 앞이 보이지 않는 비탈길, 험준한 고개, 이끼가 엉겨붙은 앙상한 고목, 진눈깨비가 금세 눈으로 바뀌는 변화무쌍한 날씨 등은 해발고도가 높은 관동 산간에서 어렵지 않게 맞닥뜨리는 풍토성의 단면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관동의 풍토성이 시적 자아의 정서와 심리상태를 표상하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화자가 형상화하고자 하는 황량함·고독감·참담함의 주제의식을 보다 절절하게 환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한편, 관동의 산수풍경 가운데서도 漁村이 즐겨 노래한 대상은 향리 강릉의 풍광이다. 강릉의 풍광 가운데서도 漁村은 자신이 깃들어 사는 거소 발치에 펼쳐져 있는 경포호수(鏡湖)를 제재로 한 시편들을 많이 남겼다. 『어촌집』에 편차된 순서로 보아 그가 벼슬길에 나아가기 전에 지은 작품, 벼슬살이를 하던 시절의 작품, 만년에 낙향해 지내던 시절의 작품들 가운데 각각 한 수씩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4) 경련의 ‘銀杯는 韓愈의 〈詠雪贈張籙〉을 노래하여 장적에게 주다) 가운데 나오는 “逐馬散銀杯 [말을 쫓아서 은잔이 흩어지네]”라는 구절을 用事한 것이다.

〈鏡湖書堂夜坐〉 〈경호 서당에 밤에 앉아서〉¹⁵⁾

地留孤嶼卽青山 땅에 외로운 섬 머물렀으니 바로 청산인데
 山外滄溟入眼寬 산 밖 푸른 바다 드넓게 눈 안에 들어오네.
 月白鑑湖湖水靜 달이 밝으니 감호(거울호수) 물결 고요하여
 恰如金斗熨氷紉 마치 다리미로 흰 비단 다림질한 것 같구나.

달이 밝게 떠오른 밤, 호숫가 서당에 앉아 창밖을 내다본다. 사위가 고요하다. 문득 청산 속 외로운 섬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든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청산 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가 시야에 들어온다. 바로 눈앞의 호수로 시선을 옮긴다. 말 그대로 거울처럼 잔잔하고 맑다. 달빛에 반짝인다. 눈이 시리도록 곱다. 마치 다리미로 흰 비단을 다림질해 놓은 것 같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숨결도 부드러워진다.

경포호숫가에 자리잡은 서당에서 마주한 밤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현재 자신이 앉아 있는 서당을 ‘청산 속 외로운 섬’으로 비유한 데서, 달빛 머금은 경포호수를 ‘다리미로 흰 비단을 다림질한 것’으로 표현한 데서, 경물을 형상화하는 漁村의 뛰어난 詩才를 실감할 수 있다. 자연의 경물과 자아가 합일된 경지를 清新하게 그려내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경포호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지만, 漁村처럼 ‘다리미로 흰 비단을 다림질한 것’으로 묘사한 예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는 한복판에 아늑한 모습으로 자리한 호수, 관동의 명승이자 대대로 강릉의 랜드마크가 되어 온 경포호수의 풍치를 참으로 정감 넘치게 형상화하고 있다. 漁村보다 50년 뒤에 태어난 송강 정철(1536-1593)은 〈관동별곡〉에서, 끝없이 펼쳐진 경포 백사장을 “십리빙환十里氷紉을 다리고 고터다려 / 당송長松 울흔 소개 슬긱장 퍼더시니”(십리나 되는 흰 비단을 다리고 또 다려서, 솔숲 우거진 속에 싹토록 펼쳐 놓았으니)라고 노래했다. 송강이 漁村의 시를 보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그 詩想의 유사함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15) 『漁村集』 卷1 · 詩

〈題紈扇附龔用卿韻〉 〈비단부채에 글씨를 쓰고 공용경의 운을 붙이다〉¹⁶⁾

湖水平如鏡	거울처럼 평평한 호수
冥冥滄海通	아스라이 푸른 바다로 이어지네.
潮光迷岸白	물결은 모래언덕을 헤매다 하얗게 빛나고
漁火射波紅	고기잡이 불은 파도를 비추며 붉게 물드네.
倚檻看歸鳥	난간에 기대어 돌아가는 새 바라보고
臨磯數去鴻	물가에 다다라 날아가는 기러기 세어보네.
村居原自得	어촌에 살면서 저절로 깨달은 것 있으니
知是對鷗翁	갈매기를 벗삼아 늙어간다는 사실이라네.

거울처럼 잔잔하고 평평한 호수, 아스라이 펼쳐진 동해바다로 이어진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바닷물결은 모래언덕을 이리저리 헤매다 하얀 물거품으로 빛나고, 저녁으로 접어들자 고기잡이 배의 불이 파도를 비추며 붉게 물들인다. 호숫가 누대에 올라, 난간에 기대어 깃 드리운 둥지로 돌아가는 새를 바라본다. 호숫가를 따라 걷다가는, 인기척에 놀라 날개를 차고 날아오르는 기러기를 세어본다. 어촌에 살면서 저절로 깨달은 것이 있으니, 갈매기를 벗삼아 한가로이 늙어간다는 사실!

경포호수 주변과 동해바다의 풍광을 스케치하듯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달리 변화라는 것이 생겨날 성싶지 않은 일상 속에서, 눈앞의 물상과 풍경들을 벗하며 나이를 먹어가는 자신을 담담하게 돌아보고 있다. 한적함이 빚어내는 여유가 짙게 풍겨온다.

작품 제목인 〈비단부채에 글씨를 쓰고 공용경의 운을 붙이다.〔題紈扇附龔用卿韻〕에는 漁村으로서 특기할 만한 내력이 담겨 있다. 중국으로부터 皇子 탄생을 알리러 사신이 왔을 때, 漁村은 이들을 접대하는 館伴使로 활동했다. 그때의 중국 사신 龔用卿은 漁村에게 ‘鏡湖漁村’ 네 글자와 오언율시 한 수를 써 주었고, 또 다른 사신 吳希孟은 ‘海雲小亭’ 네 글자를 써 주며 흰 비단부채를 하나 주었다고 한다.¹⁷⁾ 따라서 이 작품 제목에는 漁村 나름의 긍지와 추억이 담겨 있는 셈이

16) 『漁村集8』 卷7·館伴時雜稿

다. 그때의 ‘鏡湖漁村’·‘海雲小亭’ 글씨는 漁村이 기거한 강릉 海雲亭¹⁸⁾ 안에 관각되어 걸려 있다.

〈同昌邦遊鏡浦〉 〈창방과 함께 경포에서 노닐다¹⁹⁾〉

黃昏雨雪閉江城	황혼에 눈이 내려 강마을에 인적이 끊기고
十里松陰列炬明	십리 소나무숲 줄지어 햇불을 밝혀 놓았네.
勝地千秋天不管	천년승지 이곳을 하늘도 관할치 않으셨나니
風煙應屬使君行	멋진 풍광 맡기고자 그대 행차하게 하셨네.

겨울 황혼 녘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더니 강마을에 눈이 소복이 쌓였다. 길의 흔적이 지워지면서 인적이 끊긴다. 채비를 하고 昌邦²⁰⁾과 함께 경포로 나간다. 밤인데도 주위가 환하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바닷가를 따라 줄지어 늘어선 소나무숲이 온통 눈꽃을 피워, 마치 햇불을 밝혀 놓은 듯하다. 천년승지 이곳을 하늘도 관할치 않으셨으려면, 저렇게나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할까! 이처럼 멋진 풍광을 맡기고자 그대 창방을 행차하게 하셨으리니, 멋진 시 한 수 지어주시게나!

벗과 함께 완상하는 경포의 설경을 노래하고 있다. 겨울밤에 마주하는 설경은 색다른 운치를 불러 일으킨다. 더욱이 솔숲 설경은 각별한 흥취를 불러 일으킬 것이 당연하다. 줄지어 십리에 이르는 솔숲이 겨울밤 하늘에 햇불을 밝혀놓은 장관을 완상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 솔숲 앞쪽으로는 경포호수가, 솔숲 너머로는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기에 그 풍광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들어올 터다. 이와 같은 장관 앞에서 창방에게 시 한 수 부탁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닐 것이다. 고즈넉한 경포 주변의 겨울밤 풍광과 정취를 개성 넘치는 감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강릉 경포 솔숲 설경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17) 「年譜: 丁酉 先生五十一歲」, 『漁村集』 卷1

18) 海雲亭은 漁村의 나이 44살 되던 해(1530) 경포 호숫가에 축조한 누정이다. 500년의 역사를 지닌 국보급 문화재(보물 제183호)로서, 현재에도 옛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19) 『漁村集』 卷10·歸田錄

20) 昌邦은 漁村보다 연배가 제법 위인 六峰 朴祐(1476-1549)인 듯하다.

않다.

漁村이 즐겨 노래한 향리 강릉의 산수풍경은 이렇듯 수려하면서도 아늑한 물상들로 인해 다사로운 정취가 배어난다. 이는 漁村 당대만이 아니라 누대에 걸쳐 인구에 회자되어 온 이 지역 특유의 풍광이자 정취의 단면으로 보인다. 漁村보다 80여 년 후에 태어난 강릉의 인물 교산 허균(1569-1618)은 그의 『학산초담』에서, “강릉부는 옛 명주 땅인데, 산수의 아름답기가 동방에서 제일이다. 산천이 정기를 모아가지고 있어 異人이 가끔 나온다.”²¹⁾라고 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江陵山水 甲于東方’은 대대로 관용어가 되어 왔다. 강릉의 산수풍경을 노래한 漁村의 시편들로부터 이러한 산수의 수려함과 함께 강릉 특유의 풍토성에 깃든 정취까지를 실감할 수 있다고 하겠다.

관동의 산수풍경을 노래한 漁村의 시편들에는 이처럼 향토의 지리적 특성과 함께 산수를 구성하는 물상들로부터 촉발된 정취가 다채롭게 형상화되어 있다. 험준한 산과 가파른 고개와 구불구불한 비탈길로 대변되는 산간, 아늑한 호수와 절고운 백사장과 드넓은 바다로 대변되는 해안,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대대로 산수유람의 최적처로 손꼽혀 온 명승 관동팔경은 관동 특유의 지리와 경관을 대표하는 형상들이다. 관동의 산수풍경을 노래한 漁村의 시편들에는 이와 같은 특유의 지리와 경관에 기반한 관동의 풍토성이 여실히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3. 생활풍정 시편에 형상화된 관동의 풍토성

관동에서의 생활과 편력 경험을 노래한 漁村의 시편들에는 이 지역 산수풍경만이 아닌 생활풍정을 노래한 작품들 또한 적지 않다. 漁村은 강릉에서 태어나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갈 때(1513·27살)까지 강릉에서 살았다. 또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1530·44살)에는 관동 각처를 순행하면서 민생을 살폈고, 만년에 낙향한(1538·52살) 이후 세상을 뜰 때(1540·54살)까지의 기간에는

21) “江陵府古溟洲之地 山水之麗甲于東方 山川儲精 異人間出”: 許筠, 『鶴山樵談』.

향리인 강릉에 머물러 지냈다.

관동의 생활풍정을 노래한 漁村의 시편들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것은 民草들의 생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작품들이다. 愛民詩로 일컬어 손색이 없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그 한 예다.

〈麥秋次金子由光轍韻〉 〈보리 익어가는 계절에 자유 김광철의 시에 차운하다〉²²⁾

獨立長亭詠甫田	높다란 누정에 홀로 서서 보전편을 노래하고
剩看西陌又東阡	곧이어 동으로 서으로 발두둑을 돌아보네.
兩岐瑞麥薰風裏	두 가닥 상서로운 보리는 바람 속에 향기롭고
九穗嘉禾好雨邊	아홉 이삭 아름다운 벼는 시절 비에 잘 자라네.
喜入農夫南畝興	반가울사 농부님네 남쪽 이랑에서 흥을 돋우고
懼連騷客北總眠	기꺼울사 선비님네 북쪽 창가에서 잠을 잔다네.
皇天應念田家苦	하늘은 응당 농가의 괴로움을 생각하실 것이니
八穀星芒犯有年	팔곡성 별빛이 올해도 풍년을 빚어내겠네.

높다란 누정에 올라, 풍작을 기원하고 기리는 노래(甫田²³⁾)를 읊조린다. 곧이어 동쪽으로 서쪽으로 길게 번어난 발두둑을 돌아보며 풍작의 기운을 살핀다. 한 대에서 여러 이삭이 나오는 상서로운 보리 瑞麥, 영근 이삭이 일렁이는 바람결 속에서 향기롭다. 아홉 이삭을 매다는 아름다운 벼, 시절에 맞춰 내리는 비에 날로 자라고 있다.

풍작이 반가운 농부님네는 남쪽 이랑에서 흥을 돋우고, 시절이 기꺼운 선비님네는 태평성대를 노래하며 북쪽 창가에 기대어 잠을 잔다. 응당 농가의 괴로움을 살피신 하늘의 덕이려니, 바람과 비 순조로와 풍년을 기약하리라.

풍작을 기원하며 태평성대를 기리고 있다. 『어촌집』 권1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은 작품으로 보인다. 밭에서 보리가 익어가는 계

22) 『漁村集』 卷1·詩

23) 甫田은 『詩經』 小雅 〈甫田〉의 “저 넓고도 큰 밭에서, 해마다 수많은 추수를 했네. 먹고 남은 그 곡식으로는, 우리 농부들을 먹여 왔으니, 예로부터 풍년이 계속 들었네.[俶彼甫田 歲取十千 我取其陳 食我農人 自古有年]”를 말한다. 위정자의 德化와 함께 풍작을 기원하고 기리는 대목이다.

절(麥秋) 즈음이면 눈에서는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다. 강원도 동해안은 지형적으로 논농사가 발달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漁村의 향리 강릉 인근은 밭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논도 제법 확보되어 있었던 터다. 역시 관동의 풍토성이 반영된 단면이다.

경련에서 농부와 함께 騷客[시인·문사]을 등장시키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이는 요컨대 계층 간의 조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남쪽 이랑에서 흥을 돋우는 농부, 북쪽 창가에 기대어 잠을 자는 선비의 모습은 풍작으로 인해 모두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태평성대의 단면이다. 물론 당대 농업 중심사회에서 이러한 태평성대는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렇기에 漁村은 미련에서 ‘하늘은 응당 농가의 괴로움을 생각하실 것’이라고 하여, 농민들의 노고를 잊지 않아야 함을 새삼 환기한다. 여기에서의 ‘하늘’은 자연을 의미하면서 위정자의 정점에 위치한 임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漁村의 애민의식이 은은히 배어 있는 예라 할 것이다.

관동의 풍토성에 말미암은 민초들의 생업과 생활에 대한 관심은 漁村의 강원도 관찰사 시절 시편들에서 두드러진다. 漁村은 강원도 관내를 순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민초들의 생활풍정을 다채롭게 시로 읊었다. 정선 산골 마을의 생활풍정을 노래한 다음과 같은 작품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次旌善客館韻〉 〈정선 객관의 시에 차운하다〉²⁴⁾

路入神仙洞裏行	길이 신선 사는 마을 안으로 접어드니
崖平峽斷望殘城	깎아지른 계곡 사이로 옛 성터 아스라하네.
雲中畫角青山裂	구름 속 화각인양 청산 우줄우줄 솟아 있고
天上禪宮翠壁橫	하늘 위 절간인 듯 푸른 절벽이 가로놓였네.
種樹謀生憐土俗	나무 심어 살아가는 토착 풍속 불쌍하고
斫畬收賦見民情	개간한 땅 거두는 부세에 백성들 삶 내비치네.
秋高楓落江如酒	가을 깊어 단풍 떨어지니 강물이 술 같은데
揭厲寒波稱意清	강추위가 괴로움을 떨쳐 마음을 맑게 하네.

24) 『漁村集』 卷4·東關錄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 산골로 접어든다. 신선이 살 만한 곳이 아닌가 싶을 만큼 깊은 골짜기다. 깎아지른 절벽이 늘어선 계곡 사이로 아스라하게 옛 성터가 눈에 들어온다. 그림이 그려진 쇠뿔[畫削]인 양 구름 속에 우줄우줄 솟아 있는 산들, 마치 하늘 위에 세워진 절간인 듯 푸른 절벽이 가로놓여 있다. 첩첩산중, 골은 깊고 산세는 험하다.

주변의 나무들을 생계 밀천으로 삼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민초들의 삶이 가련하다. 산비탈을 일군 것이건만 그곳도 농지라고 부세를 거두어 간다. 민초들의 곤궁한 생활상이라니 눈앞에 드러난 그대로다. 시선을 돌려 계곡의 강물을 바라본다. 깊어가는 가을, 단풍잎 떨어져 흐르는 물이 맑은 술 같다. 온몸을 엄습해 오는 차가운 기운, 그 차가운 기운으로 괴로운 심사 펼쳐 내며 문득 마음을 맑힌다.

관동 산간의 형세와 그 안에 깃을 드리우고 사는 이들의 생활상이 잘 드러나 있다. 심심 산골마을, 세간으로부터 격리되어 마치 딴 세상인 듯한 그곳을 ‘신선 사는 마을’로 표현한 데서 씩씩한 웃음이 감돌게 한다. 척박한 땅과 궁핍한 물산, 관동 산간마을 풍토성의 단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중환(1690-1756)이 『택리지』에서 “땅이 매우 척박하고 자갈밭이어서, 논에 한 말의 종자를 뿌려 겨우 10여 말을 거둔다.……서쪽 고개가 너무도 높아 딴 세상과도 같다.”²⁵⁾라고 기술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말 그대로 奧地다.

그러한 오지에 깃을 드리우고 사는 민초들의 삶이란 모질고 각박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거두어가는 부세는 산비탈을 일군 발마저도 예외가 아니다. 문득 위정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강추위가 괴로움을 떨쳐 마음을 맑게 하네.’라는 미련의 마지막 구는 목민관으로서의 각성이자 자기다짐이다. 이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데서 漁村의 詩才를 새삼 실감할 수 있다. 행간에서 배어나는 여운, 청신함이 돋보인다.

한편, 관동의 생활풍정을 노래한 시편들 가운데서도 漁村이 즐겨 노래한 대상은 산수풍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리인 강릉의 풍정이다. 말년에 낙향하여 생

25) “土甚薄确 水田種一斗 僅收十餘斗……西嶺太高如異域”：李重煥, 「八道總論·江原道」, 『擇里志』

활하던 시기에 지은 시편들을 엮은 『귀전록』(권10)에서 그러한 예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작품은 경포호숫가에 깃을 드리우고 생활하는 漁村의 시야에 포착된 어느 여름날의 신새벽 정경이다.

〈上小臺〉 〈소대에 오르다〉²⁶⁾

晨涼療病客	새벽이 서늘하여 병든 나그네를 흔드니
早起上荒臺	일찌감치 일어나 황량한 누대에 오르네.
海曙煙霞赤	바다에 동이 트니 아침노을 붉어지고
天明鷓鴣催	하늘이 밝아 오니 물새들 분주하네.
江橋人度去	강문쪽 다리에는 사람이 건너가고
汀樹鳥飛來	호숫가 나무에는 새들이 날아오네.
民事方穠蕪	백성들은 바야흐로 김을 매고 복돋우고
原田曠有籬	언덕 밭 어스름한 곳에선 풀을 벤다네.

서늘한 새벽 기운에 잠에서 깬다. 쇠약해진 상태라 몸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일찌감치 일어난 터라 사위가 고요하다. 황량한 누대에 오른다. 건너다 보이는 동해, 바다를 물들이며 아침노을이 조금씩 붉어진다. 이윽고 해가 솟으리라. 하늘이 밝아오면서 물새들도 접었던 날개를 펴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먼 밭치 강문 쪽 다리로는 생업에 부지런한 이가 건너간다. 호숫가를 따라 줄지어 선 나무에는 새들이 날아와 앉는다. 전원의 이른 아침, 백성들은 바야흐로 김을 매고 논밭을 돌본다. 여명이 채 가지지 않은 언덕 밭에서는 소를 먹이려는 지 풀을 벤다. 모두들 바지런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초여름 바닷가 마을 신새벽 정경을 스케치하듯 그리고 있다. 서늘한 새벽 기운에 일찍 잠을 깬 화자의 쇠약해진 몸과 느릿한 움직임, 이와는 대조적으로 누대에 올라 조망하는 물상이며 정경들은 모두가 활기에 차고 생동감이 넘친다. 모두들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일상을 일구어가는 데 부지런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벼운 탄식과 함께 자그마한 다짐을 했을 화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바다

26) 『漁村集』 卷10·歸田錄

와 호수를 아우른 바닷가 마을의 생활풍정이 다양한 물상과 정경들을 통해 형상되고 있다. 이러한 물상과 정경들은 강원도 동해안이 아니고는 마주하기 어려운 풍정이다.

관동 동해안 바닷가 고을들은 대관령을 경계로 한 서쪽 산간 마을에 비해 그 래도 생계를 도모하기가 낫다. 그 가운데서도 강릉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해서, 서쪽 산간에 위치한 고을들은 물론 여타 동해안 바닷가 고을들과도 사뭇 다른 수준의 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강릉의 풍토성, 즉 지리적 환경과 생업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인해 삶의 양상이며 습속이 적잖게 달랐던 데 말미암을 터다.

18세기의 문인 심재(1722~1784)는 그의 『송천필담』에서, “유독 강릉은 옛 穢國의 땅으로 대관령을 넘어 들어가면 곧 아흔아홉 구비가 있다고 하는데, 감돌아 내려들어감은 마치 우물에 두레박줄을 내리는 것과 같다.……땅은 동쪽지방의 오지면서도 호남 영남지방의 풍요함을 겸하고 있다. 소나무, 대나무, 굴나무, 유자나무, 배나무, 감나무, 인삼, 영지, 죽실, 송이버섯에서 각종 해산물에 이르기 까지, 개에게 먹일 정도로 여기저기서 흔하게 나니, 생리가 절로 풍족하다.”²⁷⁾라고 했다. 이렇듯 강릉은 嶺東의 오지이기는 해도 각종 물산이 풍부하게 나므로, 예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물자(生利)가 여타 지역과 달리 풍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활여건에 힘입은 탓인지 조선시대 영동 출신 과거 급제자 수에 있어서도 강릉은 여타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다.²⁸⁾ 물론 漁村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강릉의 생활풍정을 노래한 漁村의 시편들에는 풍족함과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예들이 많다. 같은 관동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컨대 대관령 서쪽 산간마을의 생활풍정을 노래한 작품들과는 적어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어느 봄날의 마을 풍정을 노래한 다음과 같은 작품이 그 한 예다.

27) “獨江陵古之穢國也 踰入大關嶺 則云有九十九曲 盤回降入 如綆下井……地是東峽之隩 而兼有湖嶺之饒 喬松 修竹 橘柚 梨柿 人蔘 靈芝 竹實 松菌以至海 錯之飼犬 生利自足”: 沈錚, 『松泉筆譚』 卷1

28)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실은 박도식, 『강릉의 역사와 문화』, 눈빛한소리, 2004, 12-13쪽을 참조하기 바람.

〈村興〉 〈마을 흥취〉²⁹⁾

村逕聽音絕	마을 길엔 발자국소리 끊길 만큼
苔痕履齒粘	이끼가 나막신 밑굽에 엉겨붙네.
雨肥梅子大	풍족한 비에 매실은 굵어가고
風引蕨芽纖	바람은 가느다란 고사리 싹을 틔우네.
野暗春陰晚	들판이 어둑어둑 봄날이 저물더니
山明海日暹	산이 밝아지며 바다에 햇살처럼 번지네.
天機幽闕處	하늘의 기밀 그윽하고 은은한 곳에
夜月入疏簾	달빛이 성긴 주렴 사이로 들어오네.

마을 길에는 이끼가 나막신에 엉겨붙을 만큼 무성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다.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아 고즈넉하고 한가롭다. 풍족한 비와 따사로운 별의 혜택을 받아 매실은 날로 탐스러워지고, 훈훈한 봄바람은 산에 들에 여린 고사리 싹을 틔운다.

들판에 깔리는 땅거미와 함께 봄날이 저물어간다. 이윽고 산등성이로 밝은 달이 떠올라, 바다에 햇살처럼 번진다. 아늑하고 평화로운 정경 속에서, 은은하게 유동하는 자연의 운행 질서를 느낀다. 밤으로 접어들자 주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다감한 달빛에 젖어 그렇게 내내 앉아 있다.

자신이 사는 마을 주변의 한가로운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고즈넉한 바닷가 마을의 봄 낮 정경으로부터 봄 밤의 아늑한 흥취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은은하게 전해져 온다. 특히 경련의 땅거미가 깔리면서 들판이 어두워더니 이윽고 산등성으로 달이 떠올라 바다를 햇살처럼 비추는 정경 묘사가 탁월하다. 분주할 것 없는 일상, 시절에 맞춰 비를 내리고 자애로운 바람으로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자연의 조화로움, 이를 배경으로 아늑하고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신이 깃들어 사는 지역의 풍토성으로부터 촉발된 사유와 감성이 시적 정서를 환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관여하는 작품에는 이른바 향토 특유의 정조가

29) 『漁村集』 卷10·歸田錄

배어 있게 마련이다. 강릉의 생활풍정을 노래한 漁村의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 이를 실감할 수 있다.

〈重陽後一日〉 〈중양 후 하루〉³⁰⁾

急景撩人敢緩觴	달려가는 세월 사람을 혼드니 어찌 술잔 늦추랴.
良辰易過惜重陽	좋은 시절은 쉬 지나가니 애석하구나 중양절이여.
江風吹雪蘆花白	강바람 불어오니 갈대꽃이 눈처럼 훗날리고
山雨催霜粟葉黃	산비가 서리를 재촉하니 밤나무잎 누렇게 물드네.
日暮村舂聞相杵	날 저무는 마을엔 방아 짙는 소리 들리고
夜深篝火見漁梁	밤 깊어지자 등불 들고 어량 통발 살피네.
幽居一味真閒適	은거 생활 최고의 맛은 한적함이러니
莫遣歸心入帝鄉	마음 돌려 벼슬길엔 다시 나아가지 않으리.

중양절이 지났다. 빠르게도 흐르는 세월, 사람을 요동시키니 어찌 술잔 늦추겠는가. 좋은 시절은 쉬 지나간다. 애석하게도 벌써 중양절이 지나가다니! 강바람이 불어와 갈대꽃이 눈처럼 훗날린다. 산비가 내리면서 서리를 재촉한다. 밤나무잎이 누렇게 물들어가면서, 그렇게 가을이 깊어간다.

시절은 무정하게도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느 사이 날이 저문다. 마을에서는 저녁을 준비하는 방앗소리가 들린다. 밤이 깊어지자 대나무 덮개 씌운 등불을 들고 어량에 놓은 통발을 살피러 나간다. 한가로운 전원의 풍정들, 은거해 사는 최고의 맛이 여기에 있지 않으랴. 그러니 어찌 새삼 거친 세파에 몸을 맡기겠는가. 마음 돌려 벼슬길엔 다시 나아가지 않으리라.

중양절이 지난 가을 전원의 풍정과 한적한 은거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중양절은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면서 햇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명절이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에 대한 탄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전원에 깃들어 살면서 우리는 흥취에 보다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갈대꽃- 밤나무잎- 방앗소리- 어량 통발’은 화자 자신이 깃들어 사는 지역에서만 보고 듣고 살필 수 있는 것으로,

30) 『漁村集』 卷10·歸田錄

전원생활의 흥취를 돋우는 풍정들이다. 화자는 이렇듯 소박하고 정겨운 풍정들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 그래서 다짐한다. 거친 세파가 몰아치는 벼슬길엔 다시 나아가지 않겠노라고. 길지 않은 인생,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 좋은 시절은 쉬 지나가기에!

漁村이 깃들어 산 강릉 海雲亭 주변의 물상과 정경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이다. 중앙절이 지난 어느 가을, 화자의 일상을 구성하는 생활풍정을 넘어서서, 향토 특유의 정감이 물씬 배어난다. ‘눈처럼 흩날리는 갈대꽃’과 ‘누렇게 물드는 밤나무잎’의 선명한 색채감이 향토의 공간을 아름답게 채색하는가 하면, ‘저물 녘 방아짙는 소리’와 ‘등불 들고 어량 통발 살피는 밤’의 정겨움이 어린시절로부터 오래도록 가슴에 간직해 온 감성을 일깨운다. 그래서 덧없이 흐르는 세월에 대한 탄식보다는, 전원생활의 다감한 정취가 작품의 지배적 정조를 형성한다. 이렇듯 관동의 생활풍정을 노래한 漁村의 시편들에는 관동 특유의 지리적 환경과 생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배경으로, 그 안에 깃을 드리우고 사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다채롭게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漁村은 향토 고유의 물상과 정경들을 주요 제재로 활용한다.

漁村은 민초들의 생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대관령 서쪽 산간 고을의 척박한 땅과 궁핍한 물산, 오지에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이들의 곤궁한 생활에 마음을 기울인다. 그런가 하면 농지와 함께 임야와 바다를 끼고 있어 물산이 풍부하기에 생계를 도모하기가 나은 대관령 동쪽 바닷가 고을, 그 가운데서도 향리 강릉의 생활풍정을 노래한 시편들에서는 풍족함과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물론 이 경우의 시편들 역시 향토 고유의 물상과 정경들이 이미지 환기의 매개물로 작용하여 화자의 심경을 적절히 형상화한다. 관동의 생활풍정을 노래한 漁村의 시편들에는 이처럼 특유의 지리적 환경과 삶의 여건을 구성하는 관동의 풍토성이 다채롭게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4. 맺음말 : 풍토 형상화 시 연구 의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關東에 머물러 살거나 관내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사실

을 바탕으로 지어진 漁村의 시편들에는, 이 지역 산수풍경 및 생활풍정에 깃든 특유의 풍토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아울러 이들 시편에는 관동 특유의 풍토성을 구성하는 물상과 정경들을 배경으로, 작품 창작 당시 漁村이 처해 있던 심경이나 일상 속 정서들이 다채롭게 형상화되어 있다.

한시는 전통시대 지식인의 삶을 노래한 문학이다. 저마다의 인생역정에서 겪게 된 포부와 희망, 사랑과 이별, 고독과 허무, 추억과 회한, 결핍과 고통으로부터 유한한 인생과 영원에 대한 동경에 이르기까지 그 제재나 사연은 무궁무진하다. 거기에는 자신의 사연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노래하기도 하며, 인간의 삶 자체를 성찰 대상으로 삼거나 그 이치를 노래하기도 한다.

관동의 풍토성이 형상화된 漁村의 시편들에는 관동 특유의 자연환경 및 삶의 여건을 제재로 한 산수풍경의 정취, 생활풍정에 깃든 사람살이의 애환이 담겨 있다. 나아가 관동의 풍토성으로부터 촉발된 향토 특유의 정조와 함께 漁村의 내면 세계를 살필 수 있는 사유와 정서가 배어 있다. 이와 같은 시편들은 대부분 탁월한 경물 묘사를 바탕으로 섬세한 이미지와 감각적 형상을 환기함으로써 曲盡함이 묻어난다. 이점은 특히 관동의 생활풍정을 노래한 시편들에서 두드러진다.

문암 이의철(1703-1778)은 시에 뛰어난 漁村이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음을 말하면서, 漁村 시의 風格에 대해 “건실하고 풍부하며 화려하다(健富麗)”라고 평하였다.³¹⁾ 이는 漁村의 시편들이 강건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주제 의식, 풍부하면서도 감각적인 표현의 묘가 돋보임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동의 풍토성을 형상화한 漁村의 시편들로부터 이를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율곡 이이(1536-1584)는 『시경』 시 전반을 일컬어 “人情에 곡진하고 物理에 두루 통달했다.”³²⁾라고 평한 바 있다. 시의 典範에 대한 율곡의 이러한 평은 시의 요체가 뜻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정서적 형상(曲盡人情)과 사물의 이치를 구상적으로 현시(旁通物理)하는 데 있음을 묘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

31) “長於詩 邇健富麗 自成一家”: 李宜哲, 〈諡狀〉, 『漁村集』卷13. 漁村 시에 대한 역대 평들의 소개와 분석은 박영주, 「어촌 심언광 시세계의 양상과 특징」,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241-255쪽을 참조 바람.

32) “三百篇 曲盡人情 旁通物理”: 李珣, 〈精言妙選序〉, 『栗谷全書』卷13·序.

히 주목되는 것은 ‘방통물리’보다는 ‘인정곡진’을 우선으로 놓았다는 사실이다. 이점에 비추어 볼 때 관동의 풍토성을 형상화한 漁村의 시편들은 인정에 곡진한 면모가 두드러진다는 면에서 그 시적 지향의식의 특징적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특유의 자연지리적 요소에 사람살이의 여건과 결부된 인문지리적 요소가 복합된 특성을 風土性이라고 할 때, 어떤 지역의 풍토성을 제재로 한 문학 작품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장소성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지역은 삶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풍토성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닌 채 그 지역민의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물질적 정신적 요소로서 관여한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풍토성은 그 지역 자연환경의 생태적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면서, 지역민의 생활을 특징지우는 중요한 요소로서 관여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관건의 하나임에 틀림 없다.³³⁾

시를 짓는 데 있어서 지역의 풍토성에 결부된 요소들은 필수적이며 필연적이다. 예컨대 ‘고향’을 제재로 한 경우, 우리가 작품에 형상하는 ‘고향’은 관념이나 추상으로 존재하는 어떤 지역이 아니라, 자신이 나고 자란 특정 지역이며, 그 지역 특유의 풍토성을 환기하는 물상이나 풍정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상례다. 그런 면에서 문학 작품, 특히 시에 형상화된 풍토성은 이른바 ‘歸巢的 土着性’³⁴⁾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역 특유의 풍토성이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는 우선 지역 특유의 자연환경 및 삶의 여건에 기반한 문학적 정서를 이해하는 안목을 넓힐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에 기반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장소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지역문화의 향유와 전승은 물론, 발전적으로 수용 가능한 면모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데에도 적극 기여할 수

33) 물론 어떤 지역의 정체성은 그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바탕 위에 늘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이면서 사회적인 것이 동시에 문화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남송우, 「지역문화 연구 현황과 과제(2)」, 『한국문화논총』 제45집, 한국문화회, 2007, 434쪽 참조.

34) 김무조·정경주·손정희, 「조선조 누정문화 연구」, 『한국문화논총』 10집, 한국문화회, 1989, 59쪽.

있다.

요컨대 어떤 지역이나 장소는 특유의 풍광으로부터 사람살이와 결부된 요소들이 결합됨으로써 의미 있는 공간이 된다. 이 경우 공간의 의미는 개인의 감성적 인식 차원으로부터 비롯되기는 하지만,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구체화된다.³⁵⁾ 이는 마치 풍치나 경관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두가 명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풍치나 경관 속에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결부된 문화적 요소가 배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명승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풍토성을 탐구하는 작업은 이와 같은 의미 있는 공간, 유서 깊은 장소를 구성하는 기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요소를 탐구하는 작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5) 김풍기,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의 구성과 탄생」, 『동아시아고대학』 제3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359쪽 참조.

참고문헌

1. 자료

- 『國譯 漁村集』(江陵文化院)
『新增東國輿地勝覽』卷44 「江陵大都護府」
『漁村集』(活印本)
沈鏞, 『松泉筆譚』卷1
李宜哲, 「諡狀」, 『漁村集』卷13
李珥, 「精言妙選序」, 『栗谷全書』卷13
李重煥, 「八道總論·江原道」, 『擇里志』
許筠, 『鶴山樵談』

2. 논저

- 김무조·정경주·손정희, 「조선조 누정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10집, 한국문화회, 1989, 59쪽.
- 김풍기,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의 명승의 구성과 탄생」, 『동아시아고대학』 제33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359쪽.
(UCI: G704-001430.2014..33.018)
- 남송우, 「지역문학 연구 현황과 과제(2)」, 『한국문학논총』 제45집, 한국문화회, 2007, 434쪽.
(UCI: G704-000592.2007..45.009)
- 박영주, 「강호가사에 형상화된 산수풍경과 생활풍정」, 『한국시가연구』 제10집, 한국시가학회, 2001, 310쪽.
- _____, 「관동팔경 누정기에 투영된 사유와 정서」, 『인문학보』 제32집, 강릉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244쪽.
- _____, 「어촌 심언광 시 세계의 양상과 특징」,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문화회, 2011, 236·241-255쪽.
(UCI: G704-001062.2011..27.002)
- 신익철, 「심언광의 『동관록』과 『귀전록』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그 의미」, 『어촌 심언광 연구총서』 제1집, 강릉문화원, 2010.

| Abstract |

A Study on the Endemism of Gwandong in Eochon Shim Eon-gwang's Chinese Poems

Park, Young-ju

This paper examined the endemism of Gwandong embodied in the Chinese poems of Eochon Shim Eon-Gwang. Eochon is one of the poets who represent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n the poems of Eochon that sang the nature of Gwandong, the emotions triggered by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areas and the natural objects are embodied through the mediation by the endemism. In the poems that sang the life of the Gwandong people,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works for living and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are also embodied through the mediation by the endemism.

Endemism is the key to the formation of local identity in that it characterizes the natural environments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relevant area. Therefore, we can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emotions based on the local natural environment, the placeness as a place of life, an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by exploring the endemism embodied in literary works.

Key words : Eochon Shim Eon-gwang, Chinese poems, endemism, Gwandong

